

미얀마 전통 역사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전: 마이클 아웅뜨윙을 추모하며

박 장 식*

지난 2021년 8월 17일 싱가포르에서 비보가 날아왔다. 하와이대 아시아학과 마이클 아웅뜨윙 교수(Michael Aung-Thwin)가 지병인 암이 악화하여 75세로 사망했다는 소식이었다. 최근 병세가 많이 호전되어 싱가포르국립대 역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그의 아들 마이티리(Maitrii Aung-Thwin)와 함께 그들 저서(The History of Myanmar)의 개정판(2022년 초 출판 예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탈고를 눈앞에 두고 너무나 아쉬운 일이다. 그를 잘 아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섭섭한 마음 그지없어 그에 대한 심심한 애도를 그가 남긴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부족하나마 회고하는 것으로 대신해보고자 한다.

본족 아버지¹⁾와 영국 혈통이 섞인 꺼잉족 어머니를 둔 마이클은 1946년 독립 직전 미얀마에서 출생했다. 어린 시절은 미얀마에서 보

* 동아대학교 교수

1) 마이클의 부계에는 여카잉족의 혈통도 있다고 본인에게 들은 적이 있다. 다수인 버마족 외에 미얀마의 소수종족은 타종족과의 혼인이 무척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듯 보인다. 그러고 보면 평원지대의 꺼잉족(카렌족)은 혈통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다양하다. 버마-꺼잉, 산-꺼잉, 몬-꺼잉 등 저자가 아는 것만 해도 서너 종류가 된다. 의도치 않게 알게 되었던 마이클의 가문 이야기는 그동안 중단했던 미얀마의 소수종족에 대한 연구를 새롭게 시작해볼 계기가 되었다.

냈지만, 남부 인도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5년 미국에 왔다고 한다. 그는 미시간대에서 12~13세기 미얀마 버강 왕국의 국가와 사회의 본질을 규명하는 대담한 논문으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실 큰 내용을 기대하지 못하는 비문, 사원, 벽화, 조상 등 빈약한 1차 사료만 가지고 고대사의 주제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비범한 학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논문은 『근대 버마의 기원, 버강』(1985)이라는 타이틀로 하와이대에서 출판되었다. 아마도 이를 계기로 그가 제일 좋아했던 수영을 맘대로 할 수 있었던 하와이로 간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이클은 한 마디로 미얀마 역사의 이단이라고 여길 수 있다. 미얀마인 역사학자를 비롯하여 서구의 미얀마 역사학자들에게 상상도 못 할 근거를 갖춘 논점을 제시해오고 있지만, 엄중한 전통적 역사관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미얀마의 현지 학자들과 그것을 바탕으로 성립한 역사적 인식을 지닌 서구 학자들은 쉽사리 그의 창의적인 주장을 수용하려 들지 않는다. 절대 무시할 수 없지만, 주류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이것은 당대의 미얀마 역사학자로 쌍벽을 이루었던 빅터 리버만(Victor Lieberman)과 벌였던 그 유명한 두 차례에 걸친 논쟁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²⁾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논쟁은 마이클의 압승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만큼 마이클의 연구 성과는 정말 대단한 것이었다.

2) 마이클과 빅터의 논쟁은 두 차례에 걸쳐 학술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물론, 두 사람은 필자가 알기로 너무나 친한 사이이지만, 미얀마 역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첫 번째 논쟁은 Aung-Thwin(1979)의 논문에 대해 빅터가 리뷰(Lieberman, Victor B. 1980. "The Political Significance of Religious Wealth in Burmese History: Some Further Thought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39(4): 753-769.)를 쓰면서 시작되었고, 두 번째는 기존의 버마족과 몬족의 양대 패러다임을 부정하는 마이클의 저서(2005)가 나오자 이에 대해 빅터의 논쟁(Lieberman, Victor. 2007. "Review: Excising the 'Mon Paradigm' from Burmese Historiography."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8(2): 3767-383.)이 재가동되었다.

이른바 1라운드의 논쟁은 국왕과 불교 상가(sangha, 승단)의 관계에 대한 마이클의 가설에서 비롯되었다. 구원을 위한 공덕을 쌓기 위해 국왕과 귀족들은 토지, 노동력, 다른 재물을 상가에 보시하였고, 이것이 모두 면세였기에 결국 기부는 왕국의 자원을 잠식하게 되었다. 결국 국왕은 교리상으로는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가의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주기적인 불교개혁(정통 불교의 미명으로 상가의 정화를 시도함)을 시도하였다(아웅 뜨윙 1992: 323-324). 마이클은 나아가 미얀마 전통 시대를 통해 발흥한 모든 왕조에 있어서 불교 개혁의 성패가 왕조의 흥망을 결정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하였다(아웅 뜨윙 1992: 326-327). 그의 이러한 창의적 생각은 실로 놀랄 만한 것이었다. ‘구원을 향한 공덕 쌓기’에서 비롯되는 보시의 행위를 미얀마의 특별한 종교적 행위로 분석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것이 왕국의 정치·경제적 구조에 영향을 미쳐 그 지속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을 내놓아 그의 학문적인 명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³⁾

미얀마 15세기 이후의 역사 연구로 유명한 빅터는 그의 논평 글에서 1301년 상부 미얀마 농경지의 65% 가량이 상가의 소유라고 하는 정말 부족한 사료에서 정량적 통계자료를 추출한 마이클의 연구가 정말 놀랍다고 언급하지만, 마이클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기부한 농경지 면적이 사실상 부풀려졌다고 반박한다(Lieberman 1980: 754). 게다가 빅터는 마이클의 주장과 다르게 종교 개혁의 성패가 전통 시대의 모든 왕조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그 증거로 15세기 이후 종교 재산을 축적하는 패턴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3) 한국동남아학회의 전신이었던 동남아정치연구회가 처음으로 동남아 관련 저명한 논문들을 번역하여 출판하기로 결정한 책에 저자는 당시 미얀마 연구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를 보였던 이 논문을 번역하는 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마이클 아웅뜨윙. 1992. “버마(미얀마)의 역사에 있어서 불교개혁의 역할: 종교정화의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동남아 정치와 사회』 서울: 한울. 321-350.

제시하고 있다(Lieberman 1980: 757-760). 하지만, 빅터의 반박은 마이클의 주장을 무효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결정적인 반례라기보다 군소적인 사실 몇 개를 열거하는 정도의 것이었다. 또한, 마이클의 불교 개혁과 왕조 흥망의 관계는 사실상 모든 시대에 걸쳐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전통 시대에는 왕조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았는데, 외부의 침략, 왕위 찬탈을 둘러싼 내전 등 종교 문제와는 별개의 큰 정치적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1라운드의 논쟁은 빅터의 부수적인 사료 발굴과 해석이 돋보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이클의 가설은 버강 왕조에 있어서만큼은 검증된 완벽한 이론으로 자리 잡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2라운드의 얘기이다. 이번 라운드는 역사가학자가 아닌 저자가 오랜 기간 의문을 품기도 하였던 주제에서 시작된 것이라 매우 흥미롭게 그들의 논쟁을 즐겼다. 마이클은 최근에 이른바 ‘몬족 패러다임’(Mon Paradigm)이라 부르는 미얀마 역사 연구에 있어서 가장 해결하기 힘들었던 주제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마침내 그 연구 결과가 2005년 『라마냐⁴⁾의 미스테리: 허부 버마의 전설』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것은 사실상 미얀마 전통사의 관점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20세기 초의 미얀마 고대사 연구의 대가로 불리던 호주 학자 루스(D. H. Luce)의 찬란한 연구 성과를 초토화하는 결과였다. 저자에게 이 연구는 정말 오랜 기간 풀지 못했던 수학 문제를 해결하게 만든 것이어서 아직도 그 당시의 흥분이 다시 떠오른다.

거의 2년이 지난 2007년에 마이클의 2005년 저작에 대한 리뷰가 동남아 연구 저널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에 실렸다. 예상대로 빅터의 매우 충실한 논평이었다. 그의 첫 평가는 다음의 문장으로 시작된다. “그가 명명한 ‘몬 패러다

4) ‘라마냐’(Ramañña)는 고대 몬어로 스스로 몬족을 일컫는 말이었다. 현대적 어법으로 ‘라만’(Raman)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입⁵⁾의 전통적인 역사관의 뿌리와 가치를 왕창 쳐버리는 논저를 내놓았다....이 책에 따르면, (미얀마 역사) 초기의 몬족-버마족의 관계에 대해 알려진 총체적인 지식은 엉터리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버강 시대의 등장 이전에 하부 버마에는 몬족 왕국이 없었다는 것이다. 1057년 어노여타(Aniruddha, 버강 왕조의 국왕)가 몬족의 도시였던 떠통(Thaton)을 정복한 사실이 없으며, 하부의 해안가에서 상부로 문명의 이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해안가가 내륙의 기본적인 모티브를 받아들였다. 버강은 문자의 개발, 고급문화 및 정치적 ‘인프라’를 사람들이 산재해 살고 있던 하부 버마에 제공하였다. 13세기 말 버강 왕조의 쇠약으로 하부 버마가 사상 처음으로 독립적인 정체를 일구어낸 것은 모두 버강의 혜택에서 비롯되었다.” (Lieberman 2007: 377-378) 마이클의 논리 정연하고 반박할 수 없는 사료적 근거로 인하여 빅터 역시 그 책이 지니는 굉장한 논점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이클의 주장은 정말 논리 정연한 구성을 지니고 있고, 그 증거를 열거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Lieberman 2007: 378)

빅터의 비평 글에서는 마이클의 지나친 주장(overemphasis)이 자칫 위험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그중에서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기도 하다. 마이클은 적어도 15세기 이전 몬족의 도시문화는 미미한 수준으로 단정하고 있지만, 12세기 초의 비문의 내용 및 오늘날 태국 지역인 드와라와띠(Dvaravati) 또는 하리뽀자야(Haripunjaya)를 건설한 몬족의 고급 문화의 영향이 하부 버마에 미쳐 고도의 불교 문화를 구축했을

5) 마이클의 용어인 ‘몬 패러다임’이란 몬족은 전반적으로 버마족의 문명 구축에 근본적으로 관여하였으며(사실 미얀마의 전통시대 역사서(야저윙)에서는 버강 왕조의 상좌불교 도입과 사원 구축 및 문자의 도입에 있어서 몬족에게서 빌려온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그것을 통해 식민지 시대에서는 다수 버마족의 업적을 최소화시켜 미얀마 인구를 다양한 종족으로 구분하여 결국 영국의 정치적 통제를 공고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고 여긴다.

가능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쩌릿따(Kyanzittha, 재위 1084-1112년) 왕의 버강 시대에서 발견되는 압도적으로 많은 고대 문어의 비문에 대한 마이클의 해명에도 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빅터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그 어떤 명확한 사료나 자료가 아닌 오직 심증 뿐이어서 논쟁이 지속될 논리가 사라져 버렸다. 마이클의 완승에 가깝다.

2015년 5월 EBS에서 제작·방영한 다큐프라임 ‘천불천탑의 신비, 미얀마’ (3부작이지만, 3부는 제작 과정의 이야기)의 기획·제작에 저자가 참여하였다. 제작 초기여서 담당 PD와 가장 큰 대립은 야저 왕에 나타나는 전통 역사의 스토리를 그대로 따를 것인지 마이클의 새로운 역사 패러다임을 채택할 것인지에 있었다. 저자는 다큐멘터리이니만큼 근거 있는 역사적 사실에 토대를 두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공동제작에 참여한 미얀마 국영 MR-TV에서 완전히 반대하였다. 미얀마인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은 상좌불교가 하부 지역의 문족에서 도래한 것이고 그것이 친숙한 과거 이야기라는 것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은 채택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사실 마이클이 주장한 새로운 역사적 패러다임은 사료와 근거를 종합할 때 실제 역사적 사실에 근접해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스토리텔링이 없다. 19세기 초 저술된 것으로 알려진 미얀마의 정통 역사서인 유리궁전대왕조사(Mahayazawindawgyi)에서는 버강 왕조의 역사가 소설처럼 전개된다. 특히, 그곳에 적혀진 버강 왕조 시대의 역사적 사실 대부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구에 가깝다. 하지만,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대중이 더 열광하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싱가포르국립대에 마이클이 연구원으로 와 있을 때 그곳 동창회관에서 만나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사적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그는 미얀마에서 태어났고 줄곧 그곳에서 지내다가 고교 시절

인도에서 보냈고 그 후 미국으로 건너왔다고 했다. 미얀마어는 모국어가 아니었고 영국 SOAS에서 배웠다는 고백이 무척 놀랐다. 그는 버마족이 아니라 몬족에 가까운 정체성을 지니고 있지 않나 생각했는데, 그의 ‘몬 패러다임’을 전면 부정하는 주장을 듣고 너무나 놀랐다. 그것에 대해 살며시 물어보았더니 대답은 너무 단순했다. “역사학자는 발굴한 사료와 그 해석에 매달린다.” 그때 그의 강직한 학자적 기풍에 매료되었다. 작년에 아웅뜨윙 부자의 공동 저술 미얀마 역사서를 번역하기로 맘먹고 이제 탈고 직전에 있다. 한국에 미얀마에 대한 정말 권위 있는 역사서를 번역하여 출판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인데 함께 그 출판의 기쁨을 나누지 못해 섭섭한 맘 그지없다. 이 글과 그 번역서를 그의 영전에 올려 애도한다.

주요 저서

- 2018. *Bagan and the World: Early Myanmar and Its Global Connections*. Edited with Geok Yian Goh and John N. Miksic. Singapore: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 2017. *Myanmar in the Fifteenth-Century: A Tale of Two Kingdom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2012. *A History of Myanmar Since Ancient Times: Traditions and Transformations*. With Maitrii Aung-Thwin. London: Reaktion Books. (근간. 『미얀마 역사: 전통과 변형』 박장식·강민지 역. 서울: 진인진.)
- 2011. *New Perspectives in the History and Historiography of Southeast Asia: Continuing Explorations*. Edited with Kenneth R. Hall. London: Routledge Press.
- 2005. *The Mists of Ramanna: The Legend that Was Lower Burm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1998. *Myth and History in the Historiography of Burma: Paradigms, Primary Sources and Prejudices*.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 1990. *Irrigation in the Heartland of Burma: Foundations of the Pre-Colonial Burmese State*. Occasional Paper Series. DeKalb: Center for Burma Studies,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 1985. *Pagan: The Origins of Modern Burm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주요 논문 및 기고

- 2018. "The Myth of 'Splendid Isolation'." In *Bagan and the World: Early Myanmar and Its Global Connections*. Singapore: ISEAS - Yusof Ishak Institute. 1-14.
- 2013a. "Continuing, Re-emerging, and Emerging Trends in Southeast Asian History." *TRaNS: Trans-Regional and -National Studies of Southeast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 87-104.
- 2013b. "Those Men in Saffron Robes," *Journal of Burma Studies*. 17(2): 243-334.
- 2011. "A New/Old Look at 'Classical' and 'Post-Classical' Southeast Asia," in *New Perspectives in the History and Historiography of Southeast Asia: Continuing Explorations*. Edited by Michael Aung-Thwin and Kenneth R. Hall. London: Routledge. 25-55.
- 2008. "*Mranma Pran*: When Context Encounters Notion."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39(2): 193-217.

미얀마 전통 역사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전: 마이클 아웅뜨윙을 추모하며 77

- 2001a. “Ava and Pegu: A Tale of Two Kingdoms.”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42(1): 1-16.
- 2001b. “Parochial Universalism, Democracy *Jihad*, and the Orientalist Perspective of Burma: The New Evangelism.” *Pacific Affairs*. 74(4): 483-505.
- 1997. “*Hmannan Mahayazawindawgyi*.” *A Global Encyclopedia of Historical Writing*.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417-418.
- 1996. “The Myth of the ‘Three Shan Brothers’ and the Ava Period in Burm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55(4): 881-901.
- 1995. “The ‘Classical’ in Southeast Asia: The Present in the Past.” *Journal of Southeast Asian Studies*. 26(1): 5-91.
- 1991. “Spirals in Early Southeast Asian and Burmese History.” *Journal of Interdisciplinary History*. 21(4): 575-602.
- 1979. “The Role of Sasana Reform in Burmese History: Economic Dimensions of a Religious Purification.”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38(4): 671-688. (1992. “버마(미얀마)의 역사에 있어서 불교개혁의 역할: 종교정화의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동남아 정치와 사회』 박장식 역. 서울: 한울. 321-350.)

